

지상진료실

교정치료에 이용되는
외과적 술식(I)

부산대학교 치과대학
교정학교실

염정배 · 양문섭 · 장동수
최철민 · 김진배

최근 10수년 동안에 수술-교정 술식은 보다 정교하고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전되었다. 교정 치료에서 외과적 술식을 사용함으로써 혈저한 외모의 개선, 기능 증진, 치료 결과의 안정, 치료 기간의 감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. 악교정수술, 구개파열 환자의 수술 등과 같은 술식을 위해 서는 많은 장비와 전문적 인력간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교정치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외과적 술식을 사용할 수 있다면 개원한 치과의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. 이에 저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몇 가지 술식을 중례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.

I. Circumferential Supra-crestal Fiberotomy (CSF)

상하악 전치부에 있어서 심하게 회전된 치아가 존재할 경우 전대환 장치를 이용하여 5-10° 정도 over-correction 시킨 뒤 장치를 제거하기 전에 재발 방지의 목적 혹은 치아를 교정적으로 이동시키는 중에 치아 이동 속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.

그러나 치태가 존재하거나, 만성 치은염 혹은 치주염의 상태일 때와 부착치은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CSF를 시행하면 수술 후 치은퇴축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CSF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 절치가 순축 혹은 설축으로 중등도 이상 변위된 경우 역시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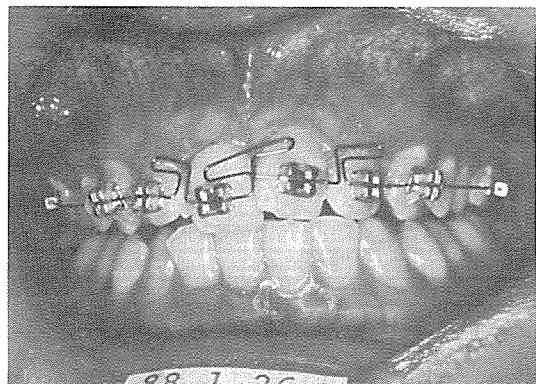


그림 1 술전 구내사진

<CSF의 술식>

1. 지혈에 도움이 되도록 1:50,000 epinephrin이 포함된 국소마취액을 치간유두부에 주사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한다.
2. No.11 Bard-Parker mass를 치은낭에 2-3mm 넣어 치조경 부위에 닿게 하여

치아 장축을 따라서 환상으로 절개한다(그림 2)(그림 3).

3. 술후 periodontal packs 부착이나 다른 술후 조치는 필요없다.

<CSF후 나타나는 현상>

1. 해당 치아의 동요도 증가; 치아간을 연결하는 trans-septal fiber의 절단으로 인

해서 야기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2-4주 이내에 동요도는 점차 감소한다.

2. CSF를 시행한 치아 주위로 약간의 잔격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CSF의 결과로 치주간극내에 생긴 술후 부종이 원인이며 일과성적인 현상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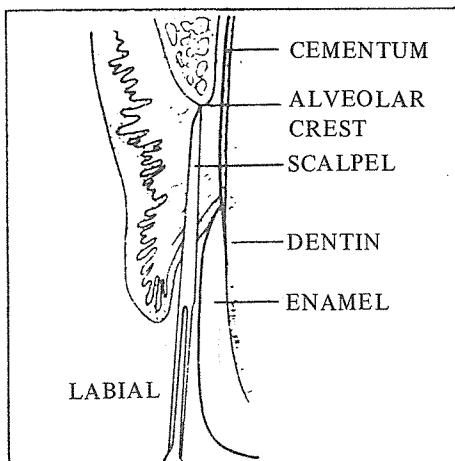


그림 2 치은낭에 수술칼을 넣는 방법



그림 3 회전된 상악 좌측 중절치를 개선한 후 CSF를 시행하고 있다.



그림 4 술후 구내사진

◆ 바로잡습니다.◆

* 본 지상진료실 란에 1989年 8월호 (Vol.27, No.8)에 게재되었던 “만곡치의 교정적 고찰” 의 본문내용중의 곡치는 모두 만곡치였기에 바로 잡습니다.